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지장전주 이설비 부가세 4700여만원 환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공익사업 등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던 지장전주 이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4,7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환수는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심사결과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5건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라상품권 만족도 조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김제시라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김제시라상품권 사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향사랑페이 앱 또는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을 통하여 진행되며 김제시라상품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권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추후 상품권 발행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수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에 최우수업소 로고 표지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신고를 완료한 이·미용업소 총 249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하여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위생상태 등 26개에 달하는 항목을 평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가시화

시민여객과 업무협약 체결 내년까지 최종 마무리

완주군이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고산북부권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이하 (주)시민여객) 대표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산북부권은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총 6개면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영 마을버스가 없어 소외받던 고산북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동안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은 안정성 저하,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편과 마을버스와의 요금 차이에 따른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시민여객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조건 차이로 지지부진



지난 22일 완주군은 고산북부권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이하 (주)시민여객) 대표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완주군에서 실시한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적정비용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감정평가 금액을 (주)시민여객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완주군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말까지 노선권 매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산북부권 6개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완주·전주 시간선제 3단계와 고산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도입을 통해 완주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새만금2호 방조제 일대 해파리 폴립 제거

해파리 대량 발생요인 사전 차단 선제대응 효과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 폴립 제거작업을 23일까지 5일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번 구제작업은 전문 잠수인력 4명이 동원되었으며 해양환경안전공단 모니터링 자료와 잠수부 현장탐색을 통해 해파리폴립 대량 서식지 2곳과 소규모 서식지 5곳을 사전 선정하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지역은 특성상 유속의 흐름이 비교적 적고 사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폴립 부착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제시는 그간 깨끗한 어장환경 유지와 어업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시 신속히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6월 초 주의단계 특보 발령에 이어 같은 달 중순 경에는 경계단계로 격상되자 특단의 조치를 통해 보름달물해파리를 제거한 바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일대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 폴립 제거작업을 23일까지 5일간 집중 추진했다.

있다. 서해안권 해역에 주로 출현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크기가 작고 독성이 약하나 대량 발생 시 어망 파손, 조업 지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파리 폴립은 성체가 되기 전 해저 구조물 등에 부착해 생존하는 유생으로, 자가분열을 통해 약 5,000마리의

성체로 증식하므로 금번 폴립 제거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방조제에 서식하는 폴립제거를 통해 해파리 대량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 대응효과가 기대된다"며 안전한 작업활동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3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이하여 김제동초등학교 하곳길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동이 행복한 김제 만들어요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3일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11월 25일)을 맞이하여 김제동초등학교 하곳길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제경찰서, 김제시 어린이집 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으며 학대 피해 아동에게 희망 메시지 전하기, 아동 4대 권리 퀴즈 맞추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 올바른 양육 방법,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신고번호 안내

및 신고 방법 등이 정리된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부터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조사, 피해 아동과 가정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9월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24년에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기술보급혁신 '최우수상'

농진청 공모 대회... 군, 데이터 분석으로 수확량 크게 높여

완주군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23년 농업기술보급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업 R&D 성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모한 대회다. 1차 서류,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4개 분야 18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완주군은 스마트농업기술지원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수경재배 상추에서 품질과 수확량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스마트형 농장비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양분 관리와 온실 내 재배환경을 관리한 실

적을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데이터 분석으로 양액냉각기를 설치해 배양액 온도를 22℃ 이하로 낮추고, 이 결과 수확량이 41%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예작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표준 데이터 정립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